

제2주제

홍성군 정신문화자원 현황과 활용방안

오석민

(충청남도역사문화원 전시유물부장)

홍성군 정신문화자원 현황과 활용방안

1. 충청남도의 등장과 연혁

- 충청도는 현재의 충청남도와 충청북도를 합하여 부르는 말로서,

호서지방이라고도 한다. 삼한시대에는 마한 지역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삼국시대에는 주로 백제에 속하였으나, 고구려·신라와의 각축이 심한 곳이었다. 백제가 망한 후에는 당나라에서 5개의 도독부를 설치하였으며, 서기 714년(성덕왕 13) 신라의 영토가 되었고, 756년(경덕왕 16)에는 9주(州)의 하나인 웅주도독부에 예속되었다. 고려시대 995년(성종 14) 충청북도 지역을 중원도(中原道), 충청남도 지역을 하남도(河南道)로 하였는데, 하남도는 웅주·운주(運州) 등 11개주를 관할하였다. 1106년(예종 1) 관내도(關內道)와 중원도·하남도를 합쳐서 양광충청주도(楊廣忠淸州道)로 하였다. 이때 비로소 충청도라는 명칭이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명종 초년에 중원·하남을 나누어 충청도로 바꾸었고, 1314년(충숙왕 1)에 다시 합쳐 양광도로, 1356년(공민왕 5)에 다시 충청도를 설치하였다.

- 조선시대에 이르러 1395년(태조 4) 양광주(楊廣州)에 속한 군현을 나누어 양주와 광주에 속한 군현은 경기도로, 충주·청주·공주·홍주(洪州)에 속한 군현은 충청도로 분할하였으며, 관찰사영을 충주에 두었다.⁹⁾ 1413년(태종 13)에는 여주·안성·음죽·양성·양지 등을 떼어 경기도에 속하게 하고, 경상도의 옥천·영동·황간·보은·청산 등을 병합하였다. 1505년(연산군 11)에는 진천·직산·평택·아산 등을 경기도에 옮겼으나, 중종이 즉위하면서 환원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1598년(선조 31)에는 감영을 공주로 옮겼다. 그 이후에도 일부 군현을 옮기는 조치는 끊이지 않았고, 1896년에는 마침내 13도제가 실시되어, 충청남도와 충청북도로 분할되었다. 1932년에는 도청을 공주읍에서 대전읍으로 이전하였다.
- 충청도는 삼국시대와 후삼국시대에 접경지역에 속하여 국가간의 각축장이었으며, 서해안으로 돌출된 서북부지방과 금강은 외부 선진문물의 수입창구였다. 소백산으로부터 속리산, 그리고 덕유산을

9) 현재까지는 충주에 감영이 있었다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나 『세종실록지리지』에는 관찰사영을 청주에 두었다고 하고, 조선 전기 청주목사가 관찰사를 겸하는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본고의 논지와 직접 관련되지 않으므로 더 이상의 논의는 생략하고자 한다. 청주 감영에 대한 이견은 아래 논지 참고, 충남발전연구원 충청학연구부(편), 2003, 『충청감영 400년』, 공주시·충남발전연구원.

거쳐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과 그 지맥인 금남과 금북정맥의 주요 산악에 축조된 산성들은 정치세력간의 대립을 보여주는 증거들이다. 왜적의 침입을 받을 때 주민들이 피난하고, 군대가 주둔했던 곳도 또한 그 산성들이었다.

- 다른 한편으로 고려 이후부터 조선시대까지는 삼남으로 가는 길목이었다. 경상도에서는 낙동강을 거쳐 충주를 넘은 후에 남한강을 따라 개성 또는 한양으로 향하였고, 전라도에서는 공주와 천안을 거쳐 북으로 향하였다. 이 길은 또한 전란을 당했을 때는 왜적의 침입로이기도 했다. 뱃길 또한 마찬가지였다. 고려 이후 삼남은 국가 재정을 좌우하는 곡창이었고, 그 근간을 담당하는 세곡(稅穀)은 뱃길로 운반되었다. 경기만과 인접한 개성 또는 한양으로 물자를 운송하기 위해서는 충청도 서해안을 경유할 수밖에 없었다.
- 성리학을 지배이념으로 삼았던 조선시대 충청도는 그 중심에 서 있었다. 목은 이색은 한산, 보령 등지를 거점으로 삼았던 한산이씨였고, 야은 길재는 현재의 금산군을 중심으로 강학활동을 벌였던 것이다. 서인-노론으로 이어지는 조선 후기 학맥과 정파 또한 연산과 노성의 사계 김장생과 그 아들 신독재 김집, 회덕의 우암 송시열과 동춘당 송준길, 그 뒤를 이은 충북 진천의 수암 권상하와 그 제자들, 즉 결성의 남당 한원진을 비롯한 강문팔학사 등으로 이어지는 계통을 근간으로 하였다.
- 조선 후기 보부상의 전통 또한 주목을 요한다. 당시 정부에 의하여 보부상들을 상무사(商務社)라는 조직으로 묶었으나, 현재 그 자료가 전해지는 지역은 경상도 창녕 지역과 더불어 충청도 3곳 뿐으로 알려져 있다. 구체적으로는 홍주를 중심으로 하는 원홍주육군상무사, 예산·덕산 등지의 예덕상무사, 모시라는 특산물이 생산되었던 저산팔읍상무사가 그것이다. 이 조직들은 모두 내포지역을 무대로 활동했던 보부상과 연관되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한산모시로 대표되는 특산물, ‘앓은 곳’으로 표현되는 충청도 무속의 전통, 조선왕조 개창 당시 새로운

도읍으로 지목되었던 탓에 조선 말 이후 신흥종교의 본산이 되었던 계룡산과 속칭 ‘신도안’ 등도 충청남도의 역사적 특징으로 거론할 수 있을 것이다.

II. 홍주목과 결성현의 연혁

1. 홍주의 연혁과 역사

- 홍주가 충남 서북부의 중심지로 부각되기 시작한 시점은 그리 오래되지 않는 듯하다. 삼국시대에는 홍주가 백제의 세력권이였으리라는 추정엔 어렵지 않으나, 조선조 읍치(邑治)가 소재했던 주변에는 군현이 성립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문헌자료에 홍주가 최초로 등장한 시기는 나말여초(羅末麗初)의 격변기이다. 신라 경순왕 8년 경, 고려의 왕건과 후백제의 견훤이 해서(海西)와 호서(湖西) 일대를 놓고 격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운주(運州) 경내의 30여 군현이 왕건에게 복속되었다.’는 기록이 나와 있다.¹⁰⁾ 여기서 운주(運州)는 곧 조선시대 홍주인 바, 이 시기가 되면 ‘웅진 이북의 30여 군현을 아우르는 요충지’로 부각되었던

10) (경순왕) 8년(934) 가을 9월, 남극성이 나타났다. 운주 경내의 30여 군현이 태조에게 투항하였다. (八年, 秋九月, 老人星見. 運州界三十餘郡縣降於太祖.) 「삼국사기」 제12권 新羅本紀12 敬順王 8년, 장흥 3년(934), 용감하고 지략이 있는 견훤의 부하 공직이 태조에게 항복하였다. 견훤은 공직의 아들 두 명과 딸 한 명을 잡아다가 다리 힘줄을 불로 지지 끊었다. 가을 9월, 견훤이 일길찬 상귀를 보내 수군을 거느리고 고려의 예성강에 들어와 3일 간 머물면서 염주, 맥주, 정주 세 주의 배 1백 척을 빼앗아 불사르고 지산도에 있는 목마 3백 필을 빼앗아 돌아갔다. 청태 원년 정월, 견훤이 태조가 운주에 주둔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바로 갑병 5천 명을 선발하여 왔다. 그가 미처 포진하지 못한 틈을 타서 장군 검필이 정에 기병 수천 명을 거느리고 돌격하여 3천여 명의 머리를 베었다. 웅진 이북의 30여 성이 이 소문을 듣고 자진하여 항복하였다. 견훤의 부하인 술사 종훈과 외원 훈겸, 용감한 장수 상달, 최필 등이 태조에게 항복하였다. (長興三年, 甄萱臣龔直, 勇而有智略, 來降太祖. 萱收龔直二子一女, 烙斷股筋. 秋九月, 萱遣一古浪相貴, 以紅兵入高麗禮城[成]江, 留三日, 取鹽・白・貞三州船一百艘焚之, 捉猪山島牧馬三百匹而歸. 清泰元年春正月, 萱問太祖屯渾[運]州, 遂簡甲士五千至, 將軍黔弼, 及其末陣, 以勁騎數千突擊之, 斬獲三千餘級. 熊津以北三十餘城, 聞風自降. 萱麾下術士宗訓・醫者訓謙・勇將尙達・崔弼等降於太祖.) 「삼국사기」 제50권 列傳10 甄萱10.

것으로 짐작된다.

- 고려 통일 이후인 995년(성종 14)에는 도단련사(都團練使)를 두었고, 1012년(현종 3)에는 지주사(知州事)로 고쳤다. 그 뒤에 시기는 분명치 않으나 홍주(洪州)로 이름이 바뀌었고, 1358년(공민왕 7)에는 왕사(王師) 태고 보우(太古普愚)의 고향이라 하여 목(牧)으로 승격되었다.¹¹⁾ 조선왕조 개창 당시에 홍주는 목사가 관할하는 고을이었고, 세조 당시 진관체제를 갖출 때에는 군사적 요충지라 하여 충청도의 5개 진관(鎭管, 공주, 충주, 홍주, 천안, 청주)의 하나로 홍주진관을 설치하여 목사 겸임하는 첨절제사(僉節制使)가 4군 12현을 관할하였다. 1895년 부제(府制) 실시에 따라 홍주부가 되면서 관찰사가 파견되기도 했으나, 이듬해인 1896년 부제(府制)가 폐지되면서 충청남도 홍주군이 되었고, 일제강점기인 1914년 군면 폐합에 의하여 홍주군과 결성군을 합하여 홍성군이 되었다.

2. 결성의 연혁과 역사

- 『삼국사기』 지리지에 의하면, 현재의 결성면 일원에 결기군(結己郡)이 설치되었으며, 그 영현(領縣)으로 신촌현(新村縣, 현 보령시 중·북부 일대)과 사시량현(沙尸良縣, 현 홍성군 장곡면 일대)을 관할하였다. 결기군은 신라 경덕왕 때에 결성군(潔城郡)으로, 그리고 고려시대에 이르러 1172년(명종 2) 결성군(結城郡)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그리고 조선시대 결성현 치소로부터 북쪽으로 5리에 위치한 신금성(神衿城, 현 결성면 금곡리)이 결성군의 옛 고을터로 추정되고 있다.
- 고려시대인 1018년(현종 9) 결성현은 홍주의 속현이 되었다가 1172년(명종 2) 감무를 둠으로써 독립했다. 그리고 조선초의 군현

11) 홍주에 대한 승격보다 앞선 1356년(공민왕 5)에는 보우대사의 모향(母鄉)인 미원(迷原)을 현으로 승격하고, 양근(楊根)을 군으로 승격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강릉과 승격이 한 차례씩 있었으나, 조선왕조 개창 당시에는 목(牧)을 유지하고 있었다.

제 개편으로 1413년(태종 13)에 현이 되었다. 그리고 구한말 지방제도 개정으로 1895년 홍주부의 결성군이 되었다가, 1896년 부제(府制)가 폐지되면서 충청남도 결성군이 되었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의 군면 폐합에 의하여 홍주군과 결성군을 합하여 홍성군이 되었다.

3. 홍성군의 성립과 그 변화

- 홍주에 관한 대대적인 행정구역의 개편은 구한말에 이루어졌다. 1897년 1월 14일 칙령 제8호에 의하여 안면도를 홍주에 전속시키고, 이어서 1901년 6월 1일에는 칙령 제11호에 따라 오천군(熬川郡)을 신설하여 도서들을 소속시키는 조치에 의하여 홍주는 모든 섬들을 잃게 되었다. 그리고 1906년 9월 28일에는 칙령 제49호에 의하여 비·두입지(飛斗入地)가 정리되면서 신평(新平)을 비롯한 모든 월경처(越境處)를 상실하였다. 이와 아울러 1895년(고종 32) 부제(府制)의 실시로 충청남도 서부의 군을 총괄하게 하다가, 1914년 부제의 폐지와 더불어 결성군을 통합하고 일부의 면을 청양군에 내어주면서 현재의 행정구역이 거의 확정되었다. 대체로 구한말~일제 초기의 기간 동안 홍주는 내포지방의 각지에 산재되었던 해상진출로를 대부분 상실하였다.
- 그러나 이러한 행정구역의 개편이 있었지만, 육상교통이 발전하지 못하여 해상교통에 의존하는 정도가 컸던 관계로, 20세기에 들어서도 홍주의 위상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던 것 같다. 현재 홍성의 도회지로서의 기능의 약화는 행정구역의 개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교통수단의 변화에 기인하여 점진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일제에 의하여 점진적으로 신작로가 개설되는 과정에서 1905년 경부선이 개통되었고, 내포지방은 육상도로로 천안역과 연결되었으며, 1931년에는 경남선(京南線, 원래 사설철도로 경남선이라 하였다가 후에 장항선으로 이름이 바뀌었다.)이 개통되었다.

- 그렇지만 1960년대까지도 내포지방의 주요 교통수단은 의연히 선박이었다. 삼교천·곡교천·안성천과 같은 아산만 일대의 크고 작은 하천으로 인하여 육상교통이 제약을 받는 상황에서는, 인천항을 통하여 서울로 진입하는 것이 훨씬 가까운 여정이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수도권을 비롯한 특정지역을 개발하는 공업 중심의 불균형발전정책이 추진되면서 상황은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러한 정부의 정책에 따라 농·어업이 쇠퇴하고, 그나마 어업부문도 산업화되면서 중소규모의 어항(漁港)들은 점진적으로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광천의 경우 갯벌이 발달한 지형적 특징으로 인하여 대규모 선박의 접안에 불리하였는데,¹²⁾ 선박의 입출항에서 인천이나 군산과 비교할 바가 못되었으므로 인공적인 접안시설의 확충에 소홀하였고, 그 결과 어항으로서의 기능은 거의 상실하게 되었다.
- 자급적인 농업경제와는 달리 상품생산을 하는 공업에서는 교통운수시설이 필수적이다. 한국의 경우, 서울-부산을 잇는 경부선을 중심으로 하여 공업단지들이 조성되었고, 일제시대에 완공된 경부선 철도를 축으로 공업발전을 모색하는 가운데, 1970년에는 (경부선 철도와 거의 나란히) 경부고속도로가 건설되었다. 그 결과 충청도에서는 천안-(청주)-대전으로 이어지는 충청남·북도의 경계선이 발전의 중심축을 형성하게 되었다. 따라서 충청북도의 동북부지방과 충청남도의 서부지방은 점점 수도권 및 서울-부산이라는 교통의 중심축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었다.
- 내포 지역의 정체는 광천읍의 쇠락으로 표현된다. 과거에는 내포지역이 바다를 통하여 외부와 교통하였는데, 그 진출입 기능을 전담하다시피 했던 광천이 1970년 이후 쇠퇴하였다는 사실은,¹³⁾ 홍성군 전체, 나아가서 내포지방 전체의 정체를 웅변적으로 보여주

12) 조선조까지 韓船은 平底船이었으므로 갯벌이 발달한 지역에 포구가 형성되었다. 그런 점에서 과거에는 광천이 천혜의 良港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선박의 형태가 달라지면서, 포구의 입지조건도 변화하게 되었다.

13) 광천읍이 바로 그러한 기능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일제시대에는 시가지 형성이 홍성보다 앞섰던 것이다.

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중소규모의 어항이 쇠퇴하고, 그나마 여객과 화물의 수송기능은 육상교통에 밀리는 변화 속에서 내포지방은 낙후된 농·어업 위주의 '오지'로 남게 되었으니, 그 중심 도회지였던 홍성이라 하여 다를 바가 없었다. 그런 가운데 1973년 아산만방조제에 이어서 1979년에는 삼교천방조제가 완공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오히려 수도권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현재 홍성군은 낙후된 충청남도 서부지방의 군(郡)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할 뿐이며 지방의 거점이라는 과거의 면모는 거의 상실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오히려 아산만권의 대규모 공업단지조성으로 천안·아산을 중심으로 개발이 진행되면서 당진·서산지방까지 개발의 물결이 전파되는 가운데, 홍성군은 더욱 왜소해지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 형편이다.

III. 홍주목의 역사지리적 위치

-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 한양이 왕도로 정해진 후 한반도의 모든 길은 한양을 향하였다. 한양에서 출발하여 북으로는 평안도 의주와 함경도 경흥, 남으로는 전라도 해남과 경상도 동래를 향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X자형의 도로체계는 지금까지 큰 변화가 없다. 이러한 4갈래의 대로에, 동으로 강원도를 지나 경상도 평해로 가는 길과 강화도로 가는 길을 더하면, 이것이 곧 조선시대의 6대 대로가 된다. 그 나머지의 길은 지선(支線)에 불과할 뿐이다.
- 지역에도 거점이 되는 고을이 있었다. 중앙정부에서는 그러한 고을을 선정하여 주(州) 또는 대도호부(大都護府)를 설치하여 중심으로 삼았다. 전라도의 전주·나주·제주·남원 등이 있었고, 충청도에는 충주·청주·공주와 더불어 홍주목이 있었다. 충주가 남한강 상류의 거점 고을이었다면, 청주는 금강 상류지방, 공주는 금

강 중류지방, 그리고 홍주는 내포의 중심지였다. 그런 까닭에 내포의 도로는 홍주를 중심으로 하였다. 내포에서 반란이 있어도 홍주읍성을 향하였고, 외병이 봉기했을 때에도 홍주를 근거지로 삼았던 것이다. 홍주에 지역 사령부라 할 수 있는 영장(營將)이 배치되었던 까닭도 여기에 있었다.

- 이러한 까닭에 내포의 정치·행정 중심지로서의 홍성의 전통은 최근까지도 흔들림이 없다. 구한국시대 잠시 부제(府制)가 실시되었을 때에도, 옛 충청도는 충주부·청주부·공주부·홍주부로 나뉘었고, 홍주부에는 관찰사가 파견되었다. 현재 홍성읍에 많은 관공서들이 소재하는 연유는, 이처럼 오랜 역사를 가진 것이다.

1) 내포 바다의 중심, 홍주목

- 옛 홍주목은 오서산에서 가야산으로 이어지는 가야산록에서 잘룩한 지점에 위치하였다. 그로 인하여 삼교천을 따라 아산만에, 그리고 상지천을 따라 천수만에 접근하기가 용이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렇게 홍주가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해상으로 진출하기 용이한 때문인 듯하다. 북동쪽으로는 삼교천을 따라 아산만에 접근할 수 있고, 남서쪽으로 보개산만 넘으면 천수만에 접근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상의 교통 및 방어를 중시하였던 조선조에는, 해상방어를 위한 사령부로서의 기능을 담당했다고 볼 수 있다.¹⁴⁾ 홍주목이 아산만에서 천수만의 안면도의 일부, 원산도 등

14) 『왕조실록』에 의하면, 충청우도의 내륙은 공주(公州), 해안은 홍주를 중심으로 군제가 편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와 관련한 기사로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외방 진관(鎭管)의 법은 군정(軍政) 중의 큰 일입니다. …… 우선 충청도로 말하면, 충주(忠州) 진관의 법이 잘 다스려질 경우 황간(黃澗)·영동(永同)·추풍령(秋風嶺) 등지의 파수하는 형세가 이루어질 수 있고, 공주(公州) 진관의 법이 잘 다스려질 경우 금강(鎭江) 일대는 근심할 것이 없을 것이며, 홍주(洪州) 진관의 법이 잘 다스려질 경우 내포(內浦)나 연해(沿海) 등지를 모두 방어할 수 있으니, 이것이 바로 일은 간단하고 공은 많은 것임을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 『선조실록』 권55, 선조 27년(1594) 9월 16일 辛卯條>; ‘…… 유성룡이 아뢰기를, “…… 조종(祖宗) 때에는 진관(鎭管)을 네 곳으로 나누고, 홍주(洪州)는 해적(海賊)을 막고 공주는 호적(湖賊)을 막도록 했는데 유근(柳根)이 충청(忠淸)에 영(營)을 설치한다 하니, 그 뜻이 좋습니다. ……” 하였다. ……’ < 『선조실록』 권82 29년 11월 26일 戊午條>; 왕이 <시사청에 나아가> 공홍 감사(公洪監司) 윤효전(尹孝全)을 원견하였다. ……

인근 도서는 물론이고, 지금은 전라북도 옥구군에 속한 어청도까지 광활한 해역을 관할하였던 것도 그 때문이라 판단된다. 더욱이 가야산을 등지고 있어서 비상시를 대비함에도 유리하였다. 홍주가 내포의 중심이 될 수 있었던 데에는 이러한 지정학적 요인도 작용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 이러한 관계로 홍주목의 행정구역이 두 방향으로 길게 뻗은 형상을 하였고, 바다를 관장하는 기능이 중시되었던 탓에, 선초(鮮初) 대산부곡(大山部曲)이나 신평현과 같은 바닷가의 비지(飛地)가 많았던 것이다. 당시 홍주에서 관할하였던 해도(海島)를 살펴보면, 『동국여지승람』에 원산도·동을비도·잉분도·사읍시도·홍아읍도·고태도가 소속되었고, 「신증조(新增條)」에는 장고도·사아읍도·외야대도·어을초대도·횡건도가 추가되었다. 영조조 『여지도서』를 보면 홍주에 속한 11개 도서를 남해도(南海島)로 묶어서 관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⁵⁾ 이처럼 해상을 관할하는 역할이 중시되고 관할영역도 넓었던 탓에, 홍주목의 해세(海稅) 부담액이 매우 많았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0> 1890년 충청도 각 지방별 海稅

윤효전이 아뢰기를, “…… 공주(公州)·홍주(洪州)·청주(淸州) 세 고을은 양남(兩南)의 요충지이며, 게다가 홍주는 양포(兩浦)의咽喉(咽喉)인데, ……” 하였다. …… 『광해군일기』 권80 6년 7월 17일 丁卯條.

15) 1896년 행정구역개편 당시에는 오천군(熬川郡)을 신설하여 해도(海島)를 관할하기도 하였다.

종류 지방	船 稅	鹽 稅	箭 稅	기 타	計
牙 山	41兩 1錢	37兩			78兩 1錢
舒 川	95兩	67兩 5錢	44兩	31兩 1錢	237兩 6錢
庇 仁	164兩 6錢	180兩	428兩 2錢	98兩 9錢	871兩 7錢
保 寧	104兩 4錢	130兩	110兩	60兩	404兩 4錢
藍 浦	24兩 2錢	187兩 5錢	17兩 5錢	15兩 7錢 5分	244兩 9錢 5分
結 城	125兩 6錢 6分	248兩 8錢	127兩 4分		501兩 5錢
洪 州	308兩 5分	521兩	73兩 4錢 5分	470兩	1,372兩 5錢
沔 川	7兩 5錢	463兩 9錢 5分			471兩 4錢 5分
唐 津	136兩	702兩 5錢	30兩	13兩 5錢	882兩
海 美	39兩	33兩 7錢	5兩		77兩 7錢
瑞 山	130兩 9錢	130兩	39兩	37兩	336兩 9錢
泰 安	158兩 5錢	228兩	190兩	32兩	608兩 5錢
平 薪	49兩 8錢	424兩 4錢 1分	44兩 5錢 5分		518兩 7錢 6分
기 타	361兩 9錢 7分	38兩 5錢			400兩 4錢 7分
계	1,746兩 7錢 8分	3,392兩 8錢 6分	1,108兩 7錢 4分	758兩 2錢 5分	7,006兩 6錢 3分

기타 : 公州, 燕岐, 沃川, 忠州, 淸風, 丹陽, 永春, 稷山, 平澤, 定山, 扶餘, 石城, 恩津, 林川, 韓山 등 15개 고을

자료 : 水産廳 水産史 編纂委員會, 韓國水産史, 1968. (『홍성군지』 p.67에서 재인용)

- 위의 표를 보면, 충청도 전체 군현의 평균 부담액(250兩 2錢 4分)의 5.5배에 이르는 액수로서, 그 부담율은 충청도 전체 군현의 19.6%이고, 2위인 당진(12.6%)을 훨씬 앞서고 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선세(船稅)는 17.6%, 염세(鹽稅)는 15.4%, 전세(箭稅)는 6.6%, 그리고 기타는 62.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는 홍주목과 바다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자료라 할 것이다.
- 사료를 통해서도 홍주목에서 두 방향으로 바다로 진출하였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천수만에 위치한 두 포구와 삼교천변의 한포구 등 포구 3개소가 홍주목의 해문(海門)으로 활용되었다. ■■■ 여지도서■■■에 따르면, '서쪽으로 40리, 남쪽으로 60리, 북쪽으로 90리 지점에 각각 해문(海門)이 있었다.'고 한다.¹⁶⁾ 남쪽으로 60리 지점에 위치한 해문은 홍주목 남용천면(南用川面) 아지포리(牙之浦里, 현재 보령시 장은리 牙浦洞)로,¹⁷⁾ 북쪽 90리의 해문은 홍주

16) 西至海門四十里 南至海門六十里 北至海門九十里. 『여지도서』 洪州牧條 洪州鐵管所屬.

17) 船泊 在用川面 牙之浦 距官門 五十里. 『忠清道邑誌』 (영조-현종 연간, 아세아문화사 영인본) 『홍주목읍지』 關防條; 『湖西邑誌』 (1871, 아세아문화사 영인본) 『홍주목읍지』 關防條. 위의 기사에 따르면 아지포의 위치는 관문으로부터 50리로 되어 있으나, 『여지도서』 홍주목坊里條에는 서남쪽 60리에 위치한다고 되어 있다. 南用川面 …… ○ 牙之浦里 自官門西南間距六十里.)

목 북신북면(北新北面) 진두리(津頭里, 현재 당진군 송악면 漢津里)로 추정된다.¹⁸⁾ 한편 서쪽 40리에 위치한 해문은 서고북면(西高北面) 해변 일대였으리라고 짐작되지만, 그 정확한 위치는 확인하기 어렵다.¹⁹⁾

- 해상방어의 측면에서도 홍주는 서해의 요충이었다. 일찍이 유성룡은 충주를 방어하면 영남에서 오는 적을 막을 수 있고, 공주를 막으면 전라도, 홍주를 막으면 서해를 통한 적을 방비할 수 있다고 하였다.

2) 홍성군의 주요 옛 포구와 장시

- 홍주목의 각 포구들이 해상활동의 근거지였지만, 특히 광천(廣川) 인근의 포구들은 서남해안에 산재한 섬과의 교역으로 성장한 도회지로서,²⁰⁾ 충청도에서는 금강의 강경에 다음 가는 상업중심지로 성장하였다.²¹⁾ 조선 말엽 상업이 발달하면서 어청도와 녹도를 중심으로 하는 속칭 ‘칠산바다’ 중심의 수산물들이 광천을 통하여 거래되었고,²²⁾ 광천의 포구에 해당하는 웅암포까지 오일장이 개시되면서, 2일간 연속 장이 서는 곳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20세기 중반까지도 계속된 것이며,²³⁾ 일제 강점기에 인천과 충청

18) 「대동여지도」에 의하면 대진(大津)의 위치가 환진리의 맞은 편인 경기도 평택군 포승면 만호리 부근으로 잘못 표시되어 있다. 읍지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아산만 이북에 홍주 관찰의 땅이 없었기 때문이다. 大津 在新北面 自官門北距一百十里, 『湖西邑誌』(1871, 아세아문화사 영인본) 『洪州牧邑誌』山川條; 『忠清道邑誌』(영조-숙종 연간, 아세아문화사 영인본) 『洪州牧邑誌』山川條. 한편 19세기 전반의 『팔도전도(八道全圖)』, 『경기·충청도지도』(영남대학교박물관 영인본, 『한국의 옛 지도』 : p.56)에도 대진은 아산만 남단의 신평(新平)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 남·북쪽의 해문은 대체로 각각 남·북창(南北倉)의 위치와 일치한다. 그로 미루어 서쪽의 해문은 서창(西倉)이 위치했던 고북면 동성리 주변으로 짐작된다. 『여지도서』에는 관문으로부터 서쪽으로 40리 지점 고북면에 창리(倉里)가 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현재 그 유적지도 남아 있다. 따라서 해문은 인근의 기포리(機浦里)로 짐작되지만, 이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 최소한 이 포구는 아지포나 대진보다 덜 중시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20) 광천은 아지포나 수영(水營)에 비하여 내륙 깊숙히 위치하여서 육상으로 운반하는 거리가 짧았다는 점 때문에 더욱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21) 『日省錄』 정조 23년(1799) 5월 9일.

22) …… 洪州廣川·瑞山聖湖 雖溪港 而通潮 故並爲商船居留轉輸之所. 『택리지』 卜居總論 生利條.

도의 서해안을 왕래하는 기선(汽船)의 운행이 있었으나, 사실 조선조 이래의 해로(海路)를 따라 운행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 내포의 중심지였던 홍주 또한 대장(大場)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다. 1900년경 홍주는 인구 1,500의 큰 고을[大邑]으로서 내포에서 가장 규모가 컸던 ‘예산장에 필적’하였다고 한다.²⁴⁾ 홍주장은 육지의 다양한 품목, 그리고 광천 등지에서 유입되는 해산물 등 다양한 상품을 거래하는 종합시장적 성격을 띠고, 주변 小場으로 출하시키는 도매시장의 기능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900년경 홍주장→백야장→용호장→광천장→결성장으로 이어지는, 홍주와 광천이라는 2개의 대장(大場)을 중심으로 주변의 소장(小場)을 연결하는 순회 장길이 형성되었다.
- 옛 결성현의 해창 인근에 위치한 성호리 또한 관심의 대상이다. 얼마 전까지도 한적한 어촌에 불과하고, 이제는 방조제가 축조되면서 내륙의 농촌으로 전락한 곳이다. 그러나 모산만의 포구, 즉 모산당포-성호리 포구-석곶포[‘돌곶이’]는 읍지(邑誌)는 물론 『만기요람(萬機要覽)』 등의 관찰사료에도 언급되던 주요 포구이다. 특히 모산당포는 태종 8년 결성현감 김자가 왜구를 물리친 곳이며, 석곶포는 조선시대 각 도(道)의 조운선[漕船]이 돌아와서 정박하는 곳으로 되어 있다. (『만기요람』, 『충청도읍지』) 이러한 배경에서 성호리 일원은 조선 후기 광천에 못지 않게 상업이 발전했던 곳으로 전해지고 있다. 성호리에는 이와 관련하여 오방제각과 성호신당 등 2개소의 공동의례 유적과 관련 기록이 보존되어 있으며, 석곶포에는 뱃사람들이 제사를 올렸다는 바위가 남아 있다.²⁵⁾ 성호리 포구~석곶포 사이에 있었던 정자 관난정은 기호 유학을 대표하는 수암 권상하가 두 제자 남당 한원진과 병계 윤봉구와 더불어 학문을 논했던 유적이기도 하다.

23) 상업의 발전상은 읍지 풍속조를 통하여 짐작할 수 있다. 『여지도서』(1760년 경)에는 ‘務稼稿尙文武’라고 하였고, 『충청도읍지』(영조-숙종 연간)이나 『호서읍지』(1871)에는 ‘尙素務農’이라 하였으나, 『홍주군지』(1870년대. 한국인문과학원 영인본 『한국근대도지』)에는 ‘尙素務農 今則民多末利’라고 하여, 그 사이의 세태의 변화를 지적하고 있다.

24) 『通商彙纂』 179호(1900. 10) 『韓國京畿忠清兩道內地情況』 p.67.

25) 오방제각은 최근에 개보수되었으나, 성호신당은 무너진 후에 망치되고 있다. 석곶포의 바위는 매립공사로 인하여 매몰된 형편에 처해 있다.

- 남당 포구는 남당 한원진의 생가터와 바로 인접해 있으며, 현재는 대하축제로 성가를 올리는 곳이다. 그러나 옛 포구의 위치는 확인된 바가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동쪽의 위치한 속칭 ‘꽃바위’가 주목되고 있다. 주민들에 전언에 의하면 예전에는 꽃바위 아래에 배가 닿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사실은 확인된 바가 없다. 이외에도 옛 홍주목 관할의 포구로는 수군 우후(水軍虞侯)가 주둔했던 원산도와 같은 포구가 많았다. 그러나 1914년 행정구역의 개편에 따라 홍성군의 관할 영역에서 제외되었고, 따라서 현 시점에서 홍성군의 역사문화자원으로 활용할 여지는 사라졌음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IV. 홍성군의 역사문화자원과 활용 현황

1. 옛 포구와 관련 의례

- 주요 포구에는 부정기적인 갯벌장[浦口場]이 서는 경우가 많고, 그 장터에는 여각(旅閣)이나 객주(客主) 등 도매상의 기능을 담당하는 상인이 있게 마련이었다. 또한 상업이나 어로와 관련된 공동의례와 그에 수반된 놀이가 행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상인들의 지원을 받은 놀이패들이 활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던 한강 송과장의 송과산대놀이 등은 말할 것도 없고, 충청 남도의 경우에도 은산장을 배경으로 하는 은산별신제, 한산 모시의 생산과 유통을 배경으로 했던 서천 저산팔읍 길쌈놀이 등도 장시와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고제 판소리 또한 강경을 비롯한 금강변의 포구와 깊은 연관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연산 백중놀이도 연산장을 배후로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조선 후기 ‘장시는 민속의 보고(寶庫)’로 평가

될 정도였으며, 실상 최근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는 놀이와 의례 가운데 장터를 배경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 앞서 언급한 옛 결성현 성호리 포구[현 결성면 성호리]에도 오방 제각과 성호신당의 의례가 지금까지 존속되고 있으며, 19세기에 작성된 관련 고문서와 편액·기문(記文)이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비사업은 진행된 적이 없으며, 일부 민속학자에 의한 부분적인 조사만이 있었을 뿐이다. 조선 후기 결성현 뿐만 아니라 내포 지역을 대표하는 포구였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풍부한 관련 자료의 발굴과 함께 다양한 활용방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광천장은 해방 후까지도 대표적인 포구장이었던 곳이다. 그러나 광천토굴로 널리 알려졌을 뿐이며, 광천장터의 민속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조차도 부족한 상황이다. 서부면의 남당 포구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다 상세한 자료의 발굴과 연구의 진행, 그 뒤를 이은 활용방안의 모색이 이어져야 할 대상으로 판단된다.

2. 홍주읍성 관련 사건과 자원

1) 홍가신 묘(廟)

- 홍주읍성은 내포 지역을 대표하는 거점이다. 이런 연유로 내포의 정치적 사건이 발발했을 때마다 홍주읍성은 근거지가 되기도 하고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거나 형벌이 가해지기도 하였다. 임진왜란 당시 분조(分朝)를 이끌었던 세자 광해군은 홍주성에 머물면서 군사를 모았고, 이몽학의 변란이 발생했을 때에는 홍주읍성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기도 했다. 특히 이몽학란을 평정한 홍가신을 모신 사당은 읍성의례로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 이몽학난은 임진왜란 와중에 내포 일원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으로, 당시 홍주목사였던 홍가신 등이 평정하였던 사건이었다. 특기할 만한 사실은 이몽학란의 괴수로 의병장이었던 한현(韓絢)이 지목되어 처형되고, 또 다른 의병장 김덕령·곽재우·고언백·홍계남 등의 연루설이 나도는 가운데 추국(推鞠)을 받던 김덕령마저 옥사(獄死)하는 일이 있었다. 이 사건은 일과만과로 변져 김덕령을 천거했던 영의정 유성룡을 탄핵하는 논의가 무성한 가운데, 선조의 명으로 비로서 잠잠해졌다.
- 홍가신묘가 이러한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여 건립되었다는 사실은 틀림이 없을 듯하나, 그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전거는 없는 실정이다. 즉 대부분의 읍지에 청난사(淸難祠)로도 불리는 홍가신묘에 관한 기록이 누락된 것이다. 홍가신묘에 관한 유일한 기록은 1925년에 간행된 『홍성군지』에 있는데, '미신(迷信)'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府院君祠는 洪州面 월산리 월산에 있다. [敷地는 1,110坪이고 建物은 4평이다.] 寧原君 洪可臣을 奉安했는데, 미루 형상의 목상[木製像] 좌우에는 侍童 木像 2개를 設置하였다. 처음에는 邑人들이 그 공덕을 칭송하여 숭배했던 것인데, 年代가 오래되면서, 숭배하는 사람들이 점차 줄었다. 다만 邑 부근의 사람 및 노동자들이 매년 정월 중에 모여들어서 祭를 지내고, 항해와 농사에서 이익을 본다.

- 위의 기록에 따르면, 일제시대에 이르러서는 최영사와 마찬가지로 유교적인 사우라기 보다는 무속신앙의 대상으로 변한 듯하다. 주민과의 면접에서도 '정월 보름 이전에 날을 택하여 허수아비를 만들어서 신을 맞이한 후에[降神], 황토를 깐 성내를 돌아다니는 행사를 벌였다.'고 하면서도, '무당들이 자주 찾는 영험이 큰 신당'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몽학과 김덕령에 관해서는 수 많은 전설이 전승되고 있으며, 과거에도 이미 채록되어 「대동야승(大東野乘)」

등에도 남아 있다. 이러한 점에서도 후술하는 최영사와 유사한 점이 있다. 홍가신묘는 군민들의 구심점이 되었던 의례라는 점에서, 보다 자세한 추가 조사 및 그에 따르는 대책이 요망되며, 홍주성 복원과 관련하여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자원이다.

2) 동학전쟁과 홍주의병

- 『홍성군지』(1925)에 의하면, 홍주읍성은 1870년에 대대적으로 개수(改修)되었다. 그러나 1894년 7월 내포지역의 동학군이 봉기하면서 많은 피해를 입어서, 남문이 훼손되고, 서·북문의 문루(門樓)가 모두 소실되어 성첩(城堞)만 일부 남았으며, 동문의 문루는 무사했으나 편액이 소실되었다.²⁶⁾ 현재의 동문은 1917년 임연상(林淵相) 군수가 1호당 평균 5전(錢)을 거두어 수선한 것이다.²⁷⁾ 홍주읍성은 1896년과 1906년 두 차례에 걸쳐 홍주의병이 거병하면서 의병의 근거지가 되었다. 특히 2차 봉기 때 홍산에서 거병한 의병은 서천·남포·보령을 경유하면서 북진하여 홍주성을 점령하였다. 이에 일본군이 주축이 되어 홍주성을 공격하면서 수많은 사상자를 낳았다. 또한 홍주읍성은 천주교 신자의 순교 현장이었던 곳이다. 『치명일기』에는 순교자 약 80명의 명단이 전해지는데, 더 자세한 내역은 조사된 바가 없다.
- 동학전쟁은 전라도를 중심으로 하는 남접에 의하여 촉발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사회적 관심 또한 그 사실에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충청도 인근의 북접의 활동도 이에 못지 않았으며, 최근에는 경상도의 동학활동에 대한 자료도 발굴되고 있다. 최근 홍성 인근의 북접의 활동에 대한 기록이 후손에 의하여 보존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2005년 태안군에서 전시회를 개최한 바가 있다. 그리고 그 유족들이 관련 유적에 대한 답사 등 활동이 본격화되는 시점이다. 홍주의병에 대한 관심은 다소 앞선 편이다. 현

26) 『홍성군지』(1925) 城池條: 同 朝陽門新建記.

27) 『홍성군지』(1925) 城池條.

재 홍주의사총이 건립되어 국가 사적지로 운영·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홍양일기』 등 이와 관련된 자료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든 상황이다. 해미읍성, 공주 황새바위에 못지 않은 순교자가 배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홍주읍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이 거의 없는 형편이다. 조선 말부터 일제 강점기에 이르는 시기에 홍주읍성과 연관된 정치·군사적 사실의 경우, 기본적인 기록의 발굴과 조사, 관련 유적지에 대한 고증 등의 기초작업이 필요한 자원이라 할 수 있다.

3. 보부상의 전통

- 현재 홍주를 중심으로 하는 옛 상무사²⁸⁾ 조직 관련 문서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즉 1851년 한성부공문(漢城府公文)에 의거하여 결성·보령·청양·대흥 등과 함께 원홍주육군상무사(元洪州六郡商務社)가 조직된 것인데, 현재 전국적으로 예덕상무사(禮德商務社, 예산·덕산·면천·당진)와 저산팔읍상무사(苧産八區商務社, 부여·홍산·남포·비인·서천·한산·임천·정산)와 더불어 경상도 창녕의 문서만이 전해질 뿐이다.

〈표 0〉 元洪州六郡商務右社의 관련 유품

지정어부	名 稱	所 在 地	指定日	관리자
重要民俗資料 제30호	樛負商遺品(一括 19種)	廣川邑 新津里455-5	92. 7.28	金東物
미지정	樛負商遺品(一括 36種)			상무사

28) 조선후기 상업의 발달에 따라, 정부에서는 보부상(樛負商)들을 상무사(商務社)로 조직하였다. 이때 도자기·소금·어물 등을 취급하는 동침장수[負商]는 좌사(左社)로, 직물·철기 등을 취급했던 방물장수[樛商]는 우사(右社)로 하였다.

<그림 1> 元洪州六郡商務社 유품



- 현재 문화재로 지정된 보부상 유품 가운데 예덕상무사 관련 전시관이 건립되어 있고, 저산팔읍과 원홍주육군상무사의 자료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을 뿐이다. 저산팔읍의 경우, 모시짜기, 바디, 길쌈놀이 등이 또한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재인 까닭에 활용된다고 할 수 있으나, 문서 자체에 대한 연구와 활용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원홍주육군상무사 자료의 활용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다만 소도읍 가꾸기 사업의 한 아이টে으로 제한되었을 뿐이다. 보부상의 전통은 현재 내포 지역에서 내세울 수 있는 차별성을 갖춘 역사문화자원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예덕 및 저산팔읍과의 연계 개발의 가능성을 검토할 대상이라고 본다.

4. 호국과 절의의 전통

- 앞서 충청도가 조선시대 기호유학의 본거지였음을 지적한 바가 있다. 그에 걸맞게 홍성에도 충·효·열이라는 삼강(三綱)의 덕목의 표본이 될 인물들이 즐비하다. 그 첫 단추는 성리학 도입기에

해당하는 여말선초 최영 장군이다. 최영 장군은 노은동에서 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19세기 후반까지도 그를 모시는 사당이 유지되고 있었다. 『동국여지승람』 등에 최영사(崔瑩祠)라 기록된 관련 기록은 거의 모든 읍지에서 언급되고 있다. 다만 『동국여지지』를 제외한 지리지에서는 ‘단묘조(壇廟條)’가 아니라, 산천조 또는 고적조에 기술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 관련 기록은 아래와 같다.

< 표 0 > 최영사 관련 기록

(신증) 동국여지승람	(新增 山川條) 동쪽 23리에 있는데, 中峯에 崔瑩祠가 있다.
東國輿地志 (1659-1674)	三峯山 위에 있다. 邑民들이 말하기를, 최영이 죽은 후에도 능히 사람들을 위하여 福을 준다고 하여, 무릇 기도하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몰려든다.
충청도읍지 (영조-헌종)	(古蹟條) 고려조에 최영이 本州 赤洞里에서 태어났으므로, 세상에서는 金谷之文 赤洞之武라고 하는 바, 최영을 가리키는 것이다. ■■■여지승람■■■에는 최영이 鐵原人으로 되어 있는데, 本貫이 철원이요, 적동에서 살았던 것이다. 고을 사람들이祠를 세우고 지금도 끊이지 않고 기도[祈祀]한다.
호서읍지 (1871)	(古蹟條) 고려조에 최영이 本州 赤洞里에서 태어났으므로, 세상에서는 金谷之文 赤洞之武라고 하는 바, 최영을 가리키는 것이다. ■■■여지승람■■■에는 최영이 鐵原人으로 되어 있는데, 本貫이 철원이요, 적동에서 살았던 것이다. 고을 사람들이祠를 세우고 지금도 끊이지 않고 기도[祈祀]한다.
충청남도지 (1870년대)	(古蹟條) 고려조에 최영이 本州 赤洞里에서 태어났으므로, 세상에서는 金谷之文 赤洞之武라고 하는 바, 최영을 가리키는 것이다. ■■■여지승람■■■에는 최영이 鐵原人으로 되어 있는데, 本貫이 철원이요, 적동에서 살았던 것이다. 고을 사람들이祠를 세우고 지금도 끊이지 않고 기도[祈祀]한다.

- 잘 알려져 있듯이, 최영은 임경업 장군 등과 함께 무속신(巫俗神)으로 널리 모셔지는 인물이다. 특히 개성 덕물산이나 전라도 나주 금성산의 경우가 그러하다. 최영을 모시는 다른 지역의 사례와 더불어, 고을 사람들이 제사를 올린다는 위의 기록을 염두에 둘 때, 최영 장군과 관련된 의례는 홍가신 사당과 더불어 홍주목 의례의 구심점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보다 상세한

고증이 필요한 역사자원일 것이다.

- 사육신 성삼문은 부연의 필요가 없는 절의의 인물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최영 장군이 출생한 집에서 태어났다. 당시 그 집은 외조부 박첨(朴檐)이 살았다고 하며, 태어날 당시 허공에서 “낳았느냐?”고 세 차례 묻는 소리가 들렸다고 하여 삼문(三問)이라 이름하였다고 전한다. 성삼문이 출생한 집에 대한 공식적인 조치는 1652년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판서를 역임한 조경이 성삼문이 태어난 집이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충신의 정표를 내릴 것을 건의하여 허락받기에 이르렀다. 1668년에는 탄생지를 표시하는 비석을 건립하였고, 1672년에는 인왕산에 발견된 선생의 신주(神主)를 이곳으로 옮겨와서 봉안(奉安)하였다. 1675년에는 성삼문에 대한 제사가 시작되었고, 1685년에는 사육신과 성삼문의 아버지 성승을 모시는 사우(祠宇)가 건립되었다. 1692년에는 녹운(祿雲)이라는 사액(賜額)을 내리고, 1712년에는 노운(魯雲)이라는 이름으로 재사액되었으며, 1769년에는 노은(魯恩)이라고 3차 사액되었다. 그러나 노은서원은 1871년 대원군의 훼철령으로 서원은 훼철되었고, 지금은 노은단과 성삼문선생유허비가 남아 있을 뿐이다. 서원이 훼철된 이후 선생의 신주는 외손봉사를 했던 논산 상월면에 세거하는 무안박씨 가문으로, 1902년에는 성삼문 선생의 봉사손(奉祀孫)이 정해지면서 연기군 금남면 달전리로 옮겨졌다. 노은서원 훼철 이후 신주를 옮겼던 가마[腰輿]와 관련 문서는 현재 충남역사문화원에 기탁되어 있다.
- 남당 한원진(南塘 韓元震, 1682~1751)은 우암 송시열-수암 권상하로 이어지는 노론 학맥의 정통을 이은 인물이다. 특히 같은 문하(門下)의 외암 이간과 인물성동이론 논쟁을 벌였다는 점은 한국 사상사의 큰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었으며, 남당은 결국 인성(人性)과 물성(物性)이 다르다는 호론(湖論)이론의 입장에서 춘추대의론을 강조하였다. 요약한다면, 호론에서는 우암의 북벌론과 소중화론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청나라를 배격한 반면, 낙론에서는 청

나라의 발전한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자는 주장을 폈던 것이다. 조선 후기 사상사의 한 갈래를 주도했던 남당은 결성 고을 남당리에 우거(寓居)하면서 제자들을 키웠고, 남당학파에 속하는 일부 유림이 홍주의병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현재 남당을 모신 양곡사가 복원된 상태이나, 그의 유허지는 함석집으로 개수된 상태에서 후손이 거주하고 있으며, 관련 유물은 후손이 보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김복한(1860~1924)은 조선 후기 세도가였던 안동김씨 중 갈피파, 속칭 '갈피김씨'로 병자호란 당시 강화도에서 순절한 선원 김상용(仙源 金尙容)의 12대손이다. 갈피김씨는 개화파의 거두 김옥균, 항일운동가인 김좌진·김가진(金嘉鎭, 1846~1922) 등을 배출한 가문이다. 김복한은 1892년 별시문과에 급제한 후에 성균관 대사성 등의 벼슬을 역임하다가, 갑오경장 때 벼슬을 버리고 낙향한 인물이다. 그러던 중 1895년 명성황후가 시해되고 단발령이 내리자 이설, 안창식, 안병찬, 임한주 등과 함께 홍주목사 이승우를 권유하여 거병하였다가 체포되어 투옥되었다.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청양의 민중식과 더불어 다시 의병을 조직하였다가 체포되었고, 1907년에도 의병은닉 등의 죄목으로 옥고를 치렀다. 3·1 운동 때에는 충청도 유림을 대표하여 파리강화회의에 파리장서(巴里長書)를 발송하기도 했던 항일투사이다. 조선 말 충청도를 대표할 유림이었던 그의 유품이 문중에 소장되어 전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김복한과 함께 거사를 도모했던 이설 등에 대한 기초연구도 현재까지는 미진한 상태이다. 김복한과 같은 갈피김씨 김좌진의 활동, 만해 한용운의 행적에 대해서는 부언의 필요가 없을 것이다. 현재 김좌진과 한용운의 생가지가 복원되어 일반에게 공개되고 있다.
- 한편 고려 공민왕 때 개혁정치를 주도했던 태고 보우선사(太古 普愚禪師) 또한 관심의 대상이다. 보우는 신돈과 대립하다가 결국 실각하였고, 그 뒤를 이어 같은 임제종 계통의 나옹 혜근(懶翁 惠勤) 또한 그 뜻을 펴지 못했다. 그러나 나옹의 제자 무학 자초(無學 自超)가 이성계를 도와 조선왕조를 개창하는 데에 공을 세웠다.

당시 한양천도론을 펴기도 했던 태고 보우의 뜻은 관철되어 한양이 조선시대의 왕도가 되었던 것이다. 보우의 고향이 홍주라 하나, 연관된 유적은 남아 있지 않고, 서울 북한산의 중흥사와 태고사, 양주 회암사, 양평 사나사에 관련 유적이 전한다. 비록 유적이 없다하더라도 그의 법통(法統)이 후일 한국 조계종의 종맥(宗脈)을 형성하였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대상이라고 판단된다.

- 홍성균은 위와 같이 기라성 같은 인물을 배출한,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호국과 절의의 고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그들에 대한 기초조사와 관련 자료의 발굴을 선행한 후에, 활용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만하다.

4. 전통 예술의 전통 (중고제, 결성농요, 한성준, 이용로 등)

- 현재 한국 판소리의 법제(法制)는 크게 서편제·동편제·중고제로 나뉜다. 그 가운데 중고제는 충청도와 경기도 일원에 분포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옛 결성 고을은 조선 영조 때 전설적인 명창 최선달과 한말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중고제를 이끌었던 김창룡 등 판소리의 대를 이어온 곳이기도 하다. 현재까지 중고제의 전통은 강경에서 활동했던 김성옥(金成玉, 1795~1828?)이 있었고, 그 전통은 아들 김정근(金定根, 생몰 미상)이 이었고, 다시 그 아들 김창룡(金昌龍, 1872~1935)을 거쳐 김세준으로 전해졌다고 한다. 김정근은 아버지가 활동했던 강경리에서 출생하였는데, 후일 서천 횡산리(橫山里, 현 서천군 장항읍 성주3리 빗그뢰)로 옮겨졌는데, 다시 김창룡이 1913년 42세 때 결성면 용호리 두지동으로 이사를 왔고, 용호장터에서 소리 공연을 하였던 것이다.
-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결성농요는 구한말 중고제 판소리의 전통을 이은 김창룡의 영향을 받은 바가 크다고 한다. 즉 그에게서 소리를 배운 사람들이 이어오는 들소리인 것이다. 그런데 그 전통이

일제강점기부터 약화되기 시작하였고, 농사가 기계화되면서 거의 중단되었던 것이다. 그런 가운데 1989년 한국농민요보존회에서 노래를 채록하였고, 1991년에 모심는 소리 '어릴렐렐 상사리'와 논매는 소리 '얼카 덩어리' 등을 성공적으로 복원하여 결성농요라 이름하였고, 1993년에는 제 34회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충청남도 대표로 참가하여 최우수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하였다. 그 결과 1995년에는 2억원의 예산으로 결성농요전수관이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결성농요는 1996년 11월 30일에 도무형문화재 제20호(기능보유자 : 최광순, 최양섭)로 지정되었다.

- 한성준(韓成俊, 본명 春錫, 1875~1941/1935)은 홍성군 구항면 공리에서 태어난 판소리의 북잡이[鼓手]이자 무용가이다. 7세 때부터 외조부 백운채(白雲彩)로부터 춤과 북을 배웠고, 14세 때부터 3년 간 홍성 서학도(徐學祖)에게 줄타기와 땅재주를 배우고 수덕사 박순조(朴順祚) 문하에서 20세가 넘도록 춤과 장단 공부를 하였다. 그의 명성은 우선 최고의 고수라는 점이다. 1894년 서울 원각사에 출연한 이후 김창환(金昌煥)·박기홍(朴基洪)·송만갑(宋萬甲)·이동백(李東伯)·김창룡(金昌龍)·정정렬(丁貞烈) 등 명창의 고수로 이름을 날렸다. 판소리에서 “가객은 가마를 타고 가고, 고수는 뒤에 북을 들고 따라 간다.”라고 하나, 한성준의 경우, 오히려 그의 후원을 얻으려는 소리꾼들이 줄을 이었으며, 실제로 5명 창에 속하는 정정렬은 한성준의 후원으로 이름을 얻게 되었다고 전한다. 또한 고수로서 활동하는 가운데 한성준은 궁중무용에 접하게 되었고, 결국 태평무(太平舞)·학무(鶴舞)·신선무(神仙舞)·살풀이춤 등을 만들었고, 김천흥(金千興), 한영숙(韓英淑), 이매방(李梅芳) 등 기라성 같은 제자들을 길러내었다.
- 고암(顧庵) 이응로(李應魯, 1904~1989) 또한 홍성군 홍북면 중계리에서 태어났다. 용봉산과 수덕사 부근에서 사생하면서 화가의 꿈을 펴다가, 1920년 17세의 나이로 당진 순성면의 염재(念齋) 송태회(宋泰會)에게 수학하였고, 다시 20세 전후에 서울로 올라가서 해강(海岡) 김규진(金圭鎭, 1868-1933)의 문하로 들어갔다. 조선미전 등에 출품하여 입선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30세가 넘어서 일

본으로 건너갔으며, 해방 후에는 홍익대학교 교수로 활동했으며, 50대가 넘어서는 유럽 등지에서 활동하면서 국제적인 화가로 명성을 높였다. 그러나 소위 '동백림 사건'에 연루되면서 귀국하지 못하였고, 1989년 86세의 나이로 파리에서 별세하여 파리 시립묘지에 안장되었다. 한편 수덕사 입구의 수덕여관은 그의 가족이 경영하던 곳이다.

V. 홍성군 역사문화자원의 잠재력과 활용 가능성

1) 포구 자원의 활용 가능성

- 광천은 지금까지도 도회의 면모를 유지하고 있으며, 토굴은 그 지역의 특산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현재 '광천토굴새우

젓-조선김 대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므로, 광천 포구와 관련된 옛 의례의 발굴은 축제 내용의 다양화를 위한 아이템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옛 광천장은 원흥주육군상무사에서 관할하는 장시였으므로, 위에서 언급한 보부상자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홍주장과와의 관계가 먼저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 결성면 성호리 포구의 관련 자료와 의례는 우선 자료 검토와 현지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조선 후기 성호 포구의 비중에 미루어 판단할 때 결코 간과될 수 없는 대상이므로, 연구결과에 따라 홍성군 서부 해안가를 대표할 수 있는 전통의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대하축제가 남당항과 가까울뿐더러, 최근 보령 천북면과 홍성 서부면을 잇는 방조제가 완공되면서 방조제 도로가 옛 모산당포를 경유하므로, 연계개발의 가능성도 높은 편이다. 이와 관련하여 모산당포가 있었던 모산도에 공원계획이 수립되어 일부 완공된 상태이므로, 성호리 관련 자료를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남당포구의 경우에는 옛 포구 위치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일 속칭 '꽃바위' 안쪽 포구가 조선시대의 포구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의례에 대한 고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꽃바위 정상부에는 유래가 불확실한 제단이 조성되어 있으며, 지금도 무당이 주관하는 의례가 행해지고 있다고 한다. 더불어 꽃바위에서 바라보는 서해 낙조가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므로, 남당 포구를 찾는 먹거리 관광객들에게 의례-놀이-경관을 같이 묶은 볼거리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홍주읍성 관련 의례의 활용 가능성

- 과거의 기록이나 주민들의 증언을 종합해 볼 때, 홍가신 묘(廟)의 의례는 옛 홍주목 행정실무자들에 의하여 주도되었던 의례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고려의 유풍(遺風)을 답습한 성황신(城隍神)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철저한 고증을 전제로 해야겠지만, 홍주읍성과는 긴밀한 연관이 있는 의례로 보인다. 따라서

홍주읍성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이에 대한 고증작업을 제안하는 바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홍성군에서는 백월산 정상에 있던 사당을 대신하여 산기슭에 청난사(淸難祠)를 새로 지어 유교식 제례를 올리고 있고, 원래 사우 건물은 무당들의 굿판으로 방치된 상태이다. 이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최영사 또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공동의례였다. 그러나 현재 전설 등으로 관련 이야기가 전승되고 있을 뿐이며, 관련 유적이 남아 있지 않다. 이에 대해서는 선행 조사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동학전쟁과 홍주의병 때에도 홍주읍성을 둘러싸고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전통시대라 한다면 읍성의례로 편입되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홍주읍성 복원과 관련된 의례로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

3) 보부상자료의 활용 가능성

-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 보부상 자료가 전해지는 곳은 경상도 창녕을 제외하면 모두 내포 지역의 것들이다. 따라서 그 활용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3지역의 자료를 통합 내지는 연계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는 여러 시·군과의 조율이 사전에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 경우 보부상들의 집단묘역이며, 선대 위패가 봉안된 홍도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²⁹⁾ 상호연계가 힘들다고 한다면, 본래의 의미를 되살려 재래시장의 의례 또는 놀이로서 정착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본이나 편의성의 측면에서 할인점 등에 밀린다면, 전통의 색채를 가미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호국과 절의 전통

29) 다만 원래 홍성군 땅이었던 홍도원은 현재 보령시에 속한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 현재 인물 관련 유적은 생가지 등의 정비에 그치고 있고, 간혹 소규모의 전시관이 건립되어 있을 뿐이다. 그런데 텅 빈 생가지는 내방객들에게 흥미를 유발시키지 못하고, 기초적인 설비도 갖추지 못한 전시관의 유물은 심하게 훼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연계 교통망이 정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연계 코스 운영을 위한 조치는 필수적이라 본다. 그리고 운영비의 일부는 홍성군이 부담하여야 할 대상으로 본다. 주요 인물을 테마로 삼는 박물관의 건립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럴 경우, 태고 보우선사(太古 普愚禪師)처럼 관내에 관련 유적지가 없는 인물을 포함시킬 수도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그를 위해서는 전시관은 유적지에 있어야 한다는 후손 또는 주민들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 전해지는 유물의 보존을 위해서도 향온향습 등의 설비를 갖춘 수장시설이 필요하며, 관련 인물의 업적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함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생가지 등에서의 전시는 관련 축제기간처럼 한정된 기간 동안 일종의 기획전의 성격으로 개최하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5) 전통 예술의 전통 (중고제, 결성농요, 한성준, 이용로 등)

- 홍성군은 중고제·결성농요 등 충청남도를 대표하기에 충분한 전통을 잇고 있으며, 한성준 등 뛰어난 예술인을 배출한 고장이다. 한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결성농요는 중고제 판소리의 영향을 받았으며, 또한 한성준은 김창룡의 고수로도 활약한 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성농요만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을 뿐, 그 모체라 할 수 있는 중고제에 대한 관심은 높지 못한 편이다. 물론 김창룡 가게에서 드러나듯이, 중고제의 전통은 홍성에 한정되었던 것은 아니었으며, 충청도와 경기도 일원을 넘나들었던 흐름이다. 그러나 결성농요가 김창룡의 영향을 받은 들소리라면, 이에 대한 일정한 관심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중고제의 전통은 거의 단절되다시피 하였으나, 홍성에서 활동했던 김창룡의 경우, 일제강점기의 음반이 전해지기도 한다.

- 한편 한성준과 이응로는 홍성에서 출생하였으나, 예산 수덕사와 일정한 관련이 있었다. 이는 개화기 이후 일제강점기까지 수덕사가 예술인뿐만 아니라 소위 신지식인의 활동무대, 나아가서 항일운동에도 일정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만해 한용운 선생과 만공선사의 교유) 인물과 관련된 역사·문화자원의 경우, 시·군, 때로는 도 단위를 넘어서 분포하는 경우가 많은데, 홍성군에서는 예산 수덕사와 관계가 특히 긴밀한 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자원의 경우, 출생지 또는 연고지 등에 집착하기보다는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광역의 활용계획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제3주제

교류증진을 통한 홍성군의 농촌관광사업 추진전략